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3)

천수(天數)를 아십니까?

의도와 결과 사이의 역사적 아이러니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들은 흔히 역사적 성패를 개인의 능력이나 우연의 결과로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수많은 요소가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과를 만들어 낸다. 오래전 맹자는 이를 천시(天時)·지리(地理)·인화(人和)라는 세 요소로 설명하며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의 화합, 곧 인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천시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천시는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한 기회를 뜻하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역사적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통찰을 의미한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시대의 방향과 어긋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으면 끝내 승리할 수 있다. 역사의 성패는 힘의 크기보다 시대를 읽는 안목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원말(元末) 주원장과 장사성의 대결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원 왕조는 이미 통치력을 잃고 있었고, 백성들은 오랜 전쟁과 수탈 속에서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강남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지방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인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 장사성은 소주(蘇州)를 중심으로 강남의 부유한 절동(浙東)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경제력과 군사력, 지리적 조건 모두 유리하였고 내부 결속도 강했다. 반면 주원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절서(浙西) 지역에서 출발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성이 훨씬 우세해 보였다. 그러나 주원장은 엄격한 군율을 세우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면서 차츰 세력을 키워 나갔다. 무엇보다 그는 단순한 무력보다 민심의 향방을 중요하게 여겼다.

천시를 읽어낸 주원장은 먼저 파양호 전투에서 강력한 경쟁자 진우량을 격파한 뒤 곧바로 장사성 토벌에 나섰다. 1367년 소주성을 장기간 포위하면서도 무조건 공격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치열한 전투가 모두에게 큰 희생을 안겨 준다는 사실과, 그것이 민심의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보급로를 차단

하여 성 안을 고립시키는 한편 심리전도 병행하였다. 또한 장사성에게 “항복하면 후한의 두옹이나 오월왕 전속처럼 후하게 예우하겠다”고도 설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서달과 상우준에게 엄격한 군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점령 지역에서 약탈과 무고한 살육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그는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은 약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거대한 민심이 되어 어떤 권력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주원장의 정책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민심의 흐름을 읽어낸 대응이었다.

반면 장사성은 끝까지 군사력에 의존하였다. 여러 차례 돌파전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정예군인 용승군마저 무너졌다. 동생 장사신도 전투 중 포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형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는 시대의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때 한 빈객이 장사성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공은 천수(天數)를 아십니까?” 여기서 천수란 단순한 운명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이며 천운(天運)이고 천시(天時)이다.

빈객은 진말의 항우를 예로 들었다. 항우는 천하무적의 영웅처럼 보였으나 결국 유방에게 패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병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천하의 흐름이 이미 한나라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장사성의 현실도 지적하였다. 장사성은 작은 병력으로 출발하여 강남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성공 이후 스스로를 경계하지 못하였다. 측근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장수와 책사들은 자신들을 한신·백기, 소하·조참에 비기며 지나치게 자만하였다. 결국 위기의식은 사라지고 오만만 남게 된 것이다.

빈객은 “천명이 있는 곳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진우량이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도 파양호 전투에서 패한 사실을 예로 들며, 시대의 흐름이 이미 주원장에게 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더 큰 희생이 생기기 전에 귀순하여 백성과 가문을 보존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장사성은 끝내 결단하지 못하였

다. 그는 과거의 성공과 자존심, 그리고 오기를 버리지 못하였다. 결국 다시 출전을 선택했고 결과는 참패였다. 소주성은 함락되었고 장사성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

장사성이 패망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인제가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자신이 이미 역사의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역사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패배 자체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데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사마광의 《자치통감》과 필원의 《속자치통감》을 연구하면서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였다. 전국시대부터 당말오대, 송·요·금·원에 이르기까지 약 2천 년 동안 수많은 정치가와 권력자들이 등장하였지만, 천시를 읽지 못한 사람은 결국 몰락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든 경제든 국가 운영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읽는 능력이다. 아무리 조직이 크고 권력이 강하더라도 시대와 민심의 방향에 어긋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옛사람들이 민심은 “조석변(朝夕變)”이라고 하였으니, 시대의 변화를 읽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천수를 읽는 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역사 속 수많은 사례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아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각각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하고, 변화의 방향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는 일이다. 인간과 권력, 흥망과 성쇠, 그리고 시대 변화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개인이든 단체이든, 나아가 국가이든 그 성공과 지속 여부는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방향에 얼마나 조화롭게 자신을 맞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역사는 언제나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사람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역시 거대한 변동 속에 놓여 있다. 국제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힘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읽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 판단의 결과를 냉정하게 보여 주어 왔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대담무쌍(大膽無雙)

큰 대. 쓸개 담. 없을 무. 쌍쌍.
대담하기가 비할 데가 없다는 뜻. 답력의 크기가 짝이 없다는 뜻. 유익어로 충간의담(忠肝義膽), 어부지용(魚父之勇), 명복장담(明日張膽) 등이 있음

대대손손(代代孫孫)

시대 대. 후손 손.
오래도록 내려오는 여러 대.
유익어로 세세손손(世世孫孫), 자자손손(子子孫孫), 자손만대(子孫萬代)가 있음

대도무문(大道無門)

큰 대. 길도. 없을 무. 문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으로 바른 길을 가려면 요행을 바라거나 지름길을 찾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
중국 남송의 선승 무문혜가에 지은 ‘무문관’의 서문에 나오는 말로 바른 도리를 따르는 데에는 정해진 길이나 방식이 없으며 큰 도리나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

대도무형(大道無形)

큰 도는 형태가 없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모양과 이름을 붙이고 규칙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노자는 오히려 그 형태 때문에 삶의 진짜 흐름을 보지 못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강물이 강을 이루는 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흘러가다가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길을 만든다. 삶도 이와 같다. 정해진 모양을 고

집하면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고 일상의 흐름과 자주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형태를 잠시 내려 놓으면 삶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낸다. 노자는 덧붙인다. “성인은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비추며 억지로 하지 않는다.(無爲)” 여기서 무위(無爲)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대동소이(大同小異)

큰 대. 같을 동. 작을 소. 다를 이.
크게 보면 같고 작은 차이만 있다는 뜻으로 큰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하다는 말
유래는 장자의 천하편에 나오는 것으로 장자는 “크게 보면 같다가도 작게 보면 다르니 이것을 소동이(小同異)라 하고 만물은 모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 이것을 대동이(大同異)라 한다고 했다. 오늘날에는 거의 비슷하다든지 크게 그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유익어로 오십보백보, 난형난제, 피장파장, 막상막하, 피차일반, 용호상박 등이 있다.

대란대치(大亂大治)

어지러울 란, 다스릴 치.
큰 혼란 뒤에 큰 다스림이 온다는 뜻으로 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 강력한 질서 재편과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뜻
격변→재편→새로운 질서 확립이라는 순환론적 관점을 담고 있다.

대명천지(大明天地)

큰 대. 밝을 명. 하늘 천. 땅 지.
사방이 밝게 빛나는 환한 세상. 대맞을 뜻하며 관용적으로로는 권모술수 없이 진실, 정의, 신뢰가 가득한 밝은 도덕 사회를 뜻하기도 함.
속리산 화양계곡 침선대 바위에 새긴 송시열의 “대명천지 숭정일월(大明天地 崇禎日月)” 〈대명의 하늘과 땅, 숭정의 해와 달 → 명나라의 정통성을 기립〉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짐

밀양종친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월 21일 2025년도 제73차 안동권씨 밀양종친회를 밀양 위양지 내 안재정에서 개최하였다. 위양지는 밀양 8경 중 하나로 신라시대에 축조된 저수지로 그 이름에는 백성을 위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저수지 한 가운데 떠 있는 완재정은 안동권씨 가문의 정자로서 봄에 피는 이팝나무와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에서 종친회원들의 단합시간을 가졌다.

신임 권유진(權裕珍, 좌윤공파) 회장은 경주 운곡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죽림공 권덕린(權德麟)의 후손으로 총회가 73년째 지속되고 있음에 선조 조상님들에 대한 권문의 자랑스러움을 잊지 말고 당부의 인사말을 하였고, 종친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참여한 회원들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회
원 확충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기로 결의

권기영 밀양종친회 총무

2026年 6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4.24. ~ 5.31. 총 납부자 29명 총 87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경주(서울 강동) 30,000	권승오(강원 강릉) 30,000	권오국(경북 안동) 30,000	권용근(서울 성북) 30,000	권태채(대구 수성) 30,000	
권덕근(서울 동대문) 30,000	권영각(강원 강릉) 30,000	권오선(경북 안동) 30,000	권익수(충남 아산) 30,000	권태훈(충북 진천) 30,000	
권명섭(대구 달서) 30,000	권영수(경북 안동) 30,000	권오안(경남 창녕) 30,000	권재모(경남 산청) 30,000	권현욱(경북 안동) 30,000	
권분기(경북 안동) 30,000	권영식(경남 밀양) 30,000	권오웅(서울 용산) 30,000	권종덕(인천 계양) 30,000	권형근(서울 금천) 30,000	
권상호(경북 안동) 30,000	권영식(서울 서대문) 30,000	권오진(강원 강릉) 30,000	권태두(경북 포항) 30,000	황현희	30,000
권세광(경기 부천) 30,000	권영학(경기 이천) 30,000	권완철(전북 정읍) 30,000	권태정(충남 홍성)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제52차 정기총회 찬조금

(접수순) 2026. 05. 27 (단위:원)

번호	성명 및 종중	금 액
1	권병후 수원종친회 회장	100,000
2	권중섭 수원 안동권씨청년회	100,000
3	권순용 대중회 이사	100,000
4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100,000
5	권기준 대중회 총무위원	300,000
6	권순보 안양종친회 회장	100,000
7	권오수 좌윤공파	100,000
8	권태복 대중회 상임위원	100,000
9	권인순 추밀공파 탄옹종중	300,000
10	권동원 추밀공파 참의공중중 이사장	300,000
11	권용기 대전총친회 회장	200,000
12	권경석 능동장학회 이사	200,000
13	권 계 주	50,000
14	권 혁 배	100,000
15	권태호 지역총친회 협의회장	200,000
16	권오달 편집위원	100,000
17	권혁도 좌윤공파	50,000
18	권태은 좌윤공파	200,000
19	권도현 대중회 총무위원	100,000
합계		2,800,000